

투데이 칼럼

트럼프에 반응 없는 김정은

각국의 인사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한 사람 있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비록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성과 없이 끝나긴 했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시절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남다른 '브로맨스(남자 간의 우정에 가까운 사랑)'를 자랑했던 사이다.

침묵을 이어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미제와 한국 괴뢰들의 도발 시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화성-19형이 북한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제1의 주력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듯 최근까지도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던 김 위원장이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잠잠한 모습이다. 당선 축하 전문 등은 물론 미국을 겨냥한 별다른 공개 활동도 없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김복규
논설위원

북한 관영매체들도 미 대선 결과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트럼프의 외교 분야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공약해 온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북한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해도 대외 정책의 최우선 현안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전념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북핵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7년 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미

국과 대화할 동기는 충분하다. 하지만 대미 접촉을 선불리 할 가능성은 작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전략적 효용 등이 충분히 크거나 해야 할 텐데, 현재 러·북 협력이 잘 되는 가운데서는 굳이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는 대중·대북 강경과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 양상과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북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대북 강경과 성향이 아주 짙은 내정자도 있다. 그러나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대

통령으로 취임하거나 어느 정도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게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건 시간문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상위 의제로 부상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북한이 과거처럼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도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 대해선 다시금 관리에 나섰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적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건 맞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을 볼 때 대중 강경파가 많다는 건 중국과 밀접한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할 부분이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와 '더 강해진 핵능력'의 김정은에게 촉각이 곤두선다.

사설

제20회 전국은고미술대전

2024년 '제20회 전국은고미술대전'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했다.

주관은 전국은고미술대전 운영위원회 그리고 전국은고미술대전 집행위원회가 맡았다.

그밖에 전주시와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예총 전주시지회가 후원했다.

전국은고미술대전은 지난 2023년에 비해 총 출품수가 100여점 증가한 842점이다. 이 가운데 한국화가 40여점이나 늘었다.

특히 10여년 넘게 참예기를 견고했던 서예의 출품작이 50여점 늘어났다.

제20회 전국은고미술대전은 신예 미술작가의 등용문이다. 이번 대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조소, 미화 등 10개 분야에 전국의 미술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국은고미술대전은 무려 20년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변화와 진화의 미술 세계가 새로운 환경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대중예술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앞으로 더욱 희망을 가지고 지역 미술의 발전과 신진 미술과의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은고미술대전은 한국 미술의 발전과 작가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수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고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메시지는 예술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야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미술과 소통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전국은고미술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

완주군 구이수채화 전시회

제1회 '나도 화가다' 전시회가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이더아 커피 2층 '모악산 청운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림에 대한 그리움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에서만 팽팽했다. 그러다가 늦깎이로 그림을 시작했다. '나도 화가다'란 이름으로 붓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도 화가다' 수채화 동호회의 첫 전시회를 열게 됐다. 참가자는 신재철 '휴식', 권명화 '엄마하고 나하고', 김기병 '집중', 김유미 '여름 손님', 김혜정 '울엄마', 배소운 '하얀 꽃', 박인숙 '천지의 힘', 이정민 '숨', 이정숙 '순수한 미소', 소홍임 '내 마음의 풍경', 정미너 '그곳에 가면', 최경숙 '내가 살던 고향은' 등이다.

동호회는 모두 완주군 구이면에 거주하는 50-60대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취미활동, 자원봉사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년의 행복을 수채화 공부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완주군 구이면 '구이 생활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수채화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다.

그 뒤 신재철 화백의 지도 아래 12명의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풍경과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낸 20여 편의 수채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신재철 화백은 80의 나이에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문화센터에 모여 수업을 받는다. 제1회 '나도 화가다' 전시회를 시작으로 수채화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열정을 더욱 키우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내 차에 소화기 준비되셨나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화기가 아닐까 싶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더더욱이 초기 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할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상 2023년의 자동차 화재는 총 4,725건이다. 발생 장소 또한 △일반도로 2,126건, △주차장 835건, △고속도로에서 818건 등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동차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승용차에서 5인승 승용자동차로 차량내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된다. 시행 시점 이후로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 적용되게 되며, 비치되는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의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진동 및 고온 테스트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의 배치 위치는 운전자가 불시에 사용하기에 쉬운 장소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하단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김정민
무주경찰서 경반민보과 순경

트렁크나 운전자로부터 먼 곳에 둔다면 긴급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범위에 있는지, 외관에 손상이 없는

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자동차 신규 및 정기 검사 등 차량 검사 시에 법규 적용대상 차량은 소화기 비치 여부를 병행 점검받게 된다.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꼭 법적일 부분을 떠나, 차량 화재나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동승하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모두 운전자라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서 차량 화재로부터 안전한 운전 생활을 시작해보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